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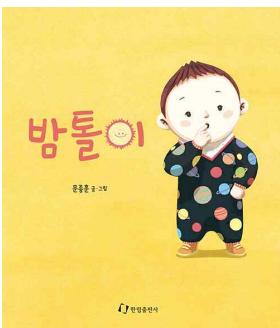






2022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나도 갈 거야	장선환	딸기책방	2021	
2	누구네 아기야?	홍지니	킨더랜드	2020	
3	똑똑 누구야 누구?	엄혜숙	웅진주니어	2021	
4	바다 목욕탕	멜리	책 읽는 곰	2021	
5	반짝	최정선	보림출판사	2021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6	밤톨이	문중훈	한림출판사	2020	
	부엉이, 판다, 두더지, 강치, 펭귄, 고릴라, 코끼리, 토끼, 고래, 펠리컨을 따라 밤톨이의 귀여운 몸짓이 펼쳐진다. 한바탕 놀고 나니 동물 친구들은 모두 엄마와 함께이다. 밤톨이 엄마는 어디 있을까? 꿈꾸면서 자라는 우리 아이를 닮은 『밤톨이』는 재미있는 몸짓과 말소리로 자연스러운 몸놀이와 말놀이를 유도하는 보드북 아기 그림책이다.				
7	방긋, 안녕!	가애	창비	2021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인식하며 감정을 배우고, 사계절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모든 아기를 위한 그림책이다. 꽃, 해, 구름, 나무, 눈사람 등 친숙한 자연물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다정하게 반긴다. 모서리가 둥근 보드북으로 제작하여 아기들이 안전하게 책을 쥐고 볼 수 있도록 했다.				
8	췌, 까꿍!	곰곰	냉이꽃	2021	
	바구니 속 인형들은 온종일 아기만 애타게 기다린다. 췌, 온다! 누굴까? 두근두근, 콩닥콩닥. 우와!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왔다. 아기는 오자마자 바구니에서 동물 인형들을 하나씩 꺼내고, 동물 인형들은 신나서 바구니 밖으로 나온다.				
9	아기똥	조영지	길벗어린이	2020	
	색깔이나 냄새만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아기똥의 특성이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담겨 있다. 모양, 색깔, 냄새 등으로 똥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먹고 온 힘을 다해 밀어 내는 아기의 힘과 성장 과정을 만날 수 있다.				
10	엄마랑 나랑	조현진	노란상상	2021	
	새근새근 잠을 자던 아기 거북이 처음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꼬물꼬물 올챙이가 처음 두 팔을 쭉 뻗는 순간 등 아기 동물들의 감동적인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다채로운 색감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묘사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야기는 단순하면서도 리듬감이 풍부해 누구나 쉽게 따라 읽을 수 있다.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11	예뻐	신혜원	딸기책방	2021	
	책장을 넘기면 아기 독자는 꼬물꼬물 귀여운 곤충 친구를 만나게 된다. 곤충 친구의 안내로 예쁜 꽃들도 만나게 된다. 모든 친구가 만난 길 끝에는 알록달록 꽃밭이 있어 행복한 꽃 잔치가 펼쳐진다. 아기가 따라 하기 좋은 재밌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읽다 보면 즐거운 말놀이가 시작된다.				
12	잘한다 자란다	김수정	빨간콩	2021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혼자 서고, 혼자 걷고, 혼자 먹는 발달 행동이 시작되는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가족들의 '잘한다'는 응원과 격려는 아기를 쑥쑥 '자라나게' 한다.				
13	주세요 주세요	신혜영	천개의바람	2021	
	아기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하고 부탁할 때 쓰는 의사 표현을 사랑스러운 그림과 귀여운 입말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아기 그림책이다. 뿐만 아니라 책을 보면 아기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동물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알고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따라하며 다양한 어휘도 듣고 말해볼 수 있다.				
14	쭉쭉쭉	강정연	책읽는곰	2018	
	눈으로는 그림을 보고, 손으로 책장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보기도 하고, 코로 냄새도 맡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듬뿍 담아 읽어 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와 그림책을 볼 때에는 온몸으로 그림책을 보고 즐기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쭉쭉쭉>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애착 놀이를 하도록 도와준다.				
15	코코코 초록잎	문승연	딸기책방	2019	
	여러 번 떼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초록 잎 스티커를 책 위의 아기 얼굴에 붙여 보자. 엄마 얼굴에도, 우리 아기 얼굴에도 떼다 붙이며 즐거운 놀이를 해 보자. 아기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신체 기관을 탐색하고 자기 몸을 긍정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코코코놀이는 이 시기의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다. 아기의 긴장도 풀어주고, 언어능력도 향상시켜준다.				